



방등계단 석종(보물 제26호)과 5층 석탑(보물 제25호)(왼쪽), 금산사 부도발 전경과 묘약산(위쪽).

용화세상 향한 마음 세월의 자취 초월하니 미륵님 오셨네

31 미륵의 근본도량 금산사

조금 일찍 갔습니다. 풀린 개울물이 속삭이듯 흐르고 산수유 꽃 노란 미소가 다소곳한 풍경만으로 금산사의 봄을 느끼기에는 부족합니다. 예로부터 호남의 4경(四境)으로 금산사의 봄, 변산반도의 여름, 내장산의 가을단풍, 백양사의 설경을 꼽았다고 합니다. 봄경치가 아름다운 금산사의 진풍경은 꽃이 흐드러지고 신록이 무르익어가는 5월 초쯤이나 되어야 제 맛을 낼 것 같습니다.

대개 사찰의 중심은 대웅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금당에 건물의 배치나 정신적인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금산사는 좀 다릅니다. 금강문과 천왕문을 지나 보제루를 지나면 정면으로 대적광전이 보입니다. 5여래(卍)로자나불·석가모니불·노사나불·아미타불·약사여래불과 6보살(대세지·관음·문수·보현·일광·월광)이 장엄하게 모셔진 대적광전이 보입니다. 그러나 발길은 마당 서쪽의 미륵전(국보 제62호)을 먼저 향하게 됩니다. 미륵전은 그냥 건물이라 아니라 언제나 깔깔 웃으며 그 너른 품을 한없이 풀어헤쳐 일체중생을 받아들이는 미륵부처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중심에 있는 금산사. 그 도량의 핵이 미륵전입니다. 그 건물 안에 커다란 미륵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몰라도 저절로 미륵의 용화도량으로 빨려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륵전은 밖에서 보면 팔작지붕의 3층 구조지만 내부는 한 층입니다. 키가 11.82m나 되는 커다란 미륵 부처님과 좌우 협시를 이루는 법화림(높이 8.19m)과 대묘상(높이 8.19m) 보살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목탑 형식의 건축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거기에 각 층

마다 편액도 각기 다릅니다. 1층은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은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은 미륵전(彌勒殿)입니다. 미륵부처님을 한자로 '자씨(慈氏)보살'이라 번역했고, 미륵부처님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셋의 이름은 모두 미륵부처님을 모신 집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륵전 옆에는 높다란 석축이 있습니다. 방등계단입니다. 금산사가 유식학을 근간으로 하는 법상종과 미륵신앙의 중심도량인 것은 개산조로 여겨지는 진표율사가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뒤 철저한 지계와 수행을 강조하고 점찰법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금산사의 방등계단은 통도사의 금강계단처럼 수계를 받은 성스러운 장소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앙에는 석종형부도(보물 제26호)가 모셔져 있습니다. 두 단의 석축 위에 모셔진 석종은 조선중기 이후의 양식이지만 석축과 부도의 기단 등은 고려시대의 솜씨 그대로입니다. 학자에 따라 이 방등계단이 도술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송대(松臺)라고도 불리는 이 석형은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미륵하생처로서의 미륵전과 별도로 도술전을 구현시킴으로써 미륵상생의 의미도 펼친 것입니다.

금산사는 미륵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도량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등계단에 올라서면 도량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이 시 한 수를 읊었다고 합니다. 천하의 영재였던 그가 시대의 불운을 한 가슴에 안고 떠돌던 중에 금산사 방등계단에 올랐으니, 그 마음이 결코 밝지 않았나 봅니다.

구름 기운 아물아물, 꿈 안은 넓은데
영긴 수풀 깔린 돌에 어운소리 들려오네.
중천의 별은 금찰(金刹, 금산사)을 밝히는데
밤중에 바람과 우레가 석단(방등계단)을
감싸 도는구나. (후략)

도량의 왼쪽으로 난 길은 묘약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입니다. 개울물에 노란 산수유 꽃이 스미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의 영역, 광고원(廣敎院) 구역이었던 곳이 지금은 부도발입니다.

야트막한 담장을 둘러친 부도발에는 2기의 탑비와 12기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부도와 비가 짝이 맞은 것은 없고 각기 하나의 승탑으로 탑비로 그렇게 조용히 묘약산 정상을 옆에 두고 서 있습니다. 금산사의 개산조로 추앙되는 진표율사(眞表律師,

부도발 가운데에 위치하는 혜덕왕사진응탑비(慧德王師眞應塔碑, 보물 제24호)는 비기림막 시설을 했습니다. 때문에 부도발의 고즈넉한 맛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찌겠습니까? 세월의 풍상이 살점을 뜯어내는 것을 막자면 최소한의 보호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탑비는 많이 마모되어 글자를 판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동금석원> <조선금속총람> 등의 사료(결락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에서 그 전문을 읽을 수 있음이 다행입니다. 탑비의 이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귀부는 선명한 갑골문이 특징입니다. 조밀한 갑골문이 살아있는 거북을 연상케 하고 움츠린 듯한 목과 하늘을 쳐다보는 눈동자가 매우 사실적입니다.

혜덕왕사 소현(顯顯 1038~1095) 스님은 고려 문종 33년(1079)에 금산사를 중창했습니다. 여러 사찰을 다니며 법석을 열었고 왕실의 법회를 주관하기도 했던 스님은 1079년에 금산사의 주지를 맡았습니다. 이 때 스님은 광고원을 설치하여 <법화현전>

<유식술기> 등의 장소(章疏) 32부 353권을 간행한 것으로 전합니다. 그 업속하던 간경불사의 현장이 지금은 부도발으로 변했으니 세월의 무상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탑비는 고려 예종 6년(1111)에 세웠는데, 예종이 혜덕왕사라는 탑호를 내렸습니.

비문에 의하면, 혜덕왕사가 입적했을 때 대각국사의 천 스님이 예도하는 마음으로 제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일부가 소개되고 있으니,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진교(眞敎)를 호포하여 왔는데, 이제 스님께 서 입적하였으니 내 누구와 함께 전할 것인가"라고 한탄했습니다.

진표율사가 전건에 맞서는 중창으로 금산사의 터를 다졌고 혜덕왕사의 중창이 도량을 일신했다면, 그

뒤를 이어 원명해원(圓明海圓 1262~1330) 스님은 고려말의 금산사를 장엄한 고승입니다. 혜덕왕사진응탑 바로 아래 네모난 것을 쓰고 서 있는 비의 주인공입니다. 이 비석은 부도탑비라기보다는 행적을 기리기 위해 후에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원 스님은 덕망이 얼마나 높았는지 원나라에 초빙되어 원 무제의 원찰인 승은복사의 초대 주지를 맡았습니다. 20년 이 남도록 원나라에 머물다가 고려 충숙왕이 원 무제에게 요청하여 귀국(1328)했을 정도입니다. 해원 스님은 금산사를 중창하고 다시 원나라로 가서 입적했는데, 계행이 철저히였을 뿐 아니라 유식학에 밝아 어느 논쟁에서나 뜻사람들을 감화시켰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금산사를 빛낸 고승은 뇌묵처영(雷默處英)과 소요태능(遼達太能 1562~1649) 스님이 꼽힙니다. 처영 스님은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을 맞아 금산사를 중심으로 1000여 명의 승병을 모아 호남 승군의 총수로서 왜적과의 싸움에 앞장섰습니다.

태능 스님의 부도는 부도발에 있지만 탑비는 전하지 않고 관련 사료들에만 전합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고 송파의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을 때, 삼전도의 비문을 지었던 백현(白軒)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이 태능 스님의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는 소요태능 스님의 생애를 간략히 정리하고 말미를 아름답고 웅혼한 비명(碑銘)으로 회통했습니다.

무(無)의 근본 본래 없을 것 없고
유(有)라지만 유를 어찌 앓다 하리요!
멸(滅)하지만 그 본성은 멸하지 않고
우연(偶然)이라 말하지만 우연 아님세!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이에 앞서며
제 아무리 장수환멸 이에 뒤지랴!
어느 누가 이것보다 장수할 건가?
그의 실제 영원하여 생멸이 없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방등계단 우뚝한 위용 땅위의 도술천으로 상징

진표율사 혜덕왕사 등 중창... 미륵상 · 하생 신앙 조화

생물미상의 부도는 전해지지 않지만, 최근 금산사에서 팔각원당형의 형식을 따라 새로 조성해 부도발의 맨 뒷단 중앙에 모셨습니다. 진표율사를 금산사의 개산조로 보는 것이 통례지만, 진표율사가 12세에 금산사로 출가했다는 설을 참조하면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도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표율사는 어릴 적 개구리를 잡았다가 느린바가 있어 출가했는데 온 몸을 던져 수행을 했습니다. 지장보살과 미륵불에게 수계를 받기 위해 팔이 부러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견디는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소에게도 계를 설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왕실의 시주물을 나누어 주는 등 율사의 일화들은 백제유민들의 희망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제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선사 최고금상 수상

문의: (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 햇차 선금 주문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만 선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 전화 : 061-285-0301,2 | 팩스 : 061-285-0304 | choyeetea.co.kr/choyee.or.kr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지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지문화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